

2009 - Denver 총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이미옥 (국문 68)



북미주 이화동창

동창은 이화가 베풀어준 보배, 우애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Ewha 2009*  
One Ewha, One Vision!

초 대 합 니 다

North America Unifying Conference

Nov. 12~15, 2009

The Inverness Hotel

Denver, Colorado



#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 이화여대 총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University to*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Bae-young Lee  
President of Ewha University

Greetings to Ewhaians in the distant North America!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gratitude that I am sending this message to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ough oceans away, you have shown steadfast support and love for your alma mater which have allowed us to dream and hope for an even brighter future for Ewha. Each time I meet with our proud alumnae, I become more convinced that this university will rise amongst the world's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that Ewha as we know it today is not the achievement of a single individual but the work of God brought to us with the prayers and sacrifice of all those who bear the Ewha name.

This year we commemorate the 123rd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Ewha as well a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Mary F. Scranton, who with her grand vision lit the torch of education that enlightened Korean women. From a humble beginning in 1886 with only one student enrolled, Ewha has grown to become the largest women's university in the world with some 170,000 alumnae to date. The university will continue its remarkable journey with its defining spirit of challenge and innovation, sharing and service, and giving and sacrifice.

Some of our latest achievements demonstrate the excellence of Ewha University as a research-oriented institution. As many as nine of our research project groups have won grants under the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which will fund collaborations with four Nobel laureates including Dr. George F. Smoot, one of the two winners of the 2006 Nobel Prize in Physics. Through such joint academic endeavors with world's leading scholars, Ewha hopes to further strengthen its capabilities of creative research.

Ewha is also working on expanding its campus. Under construction is the Education and Research Complex in Paju where we are planning to build the World Peace Center. Paju is a town situated near the DMZ, the symbol of the world's only divided nation. The particular location of the World Peace Center will amplify our message of peace and justice to the global community.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 that envisions peace and the common good of humanity in

such a unique site of geopolitical tension, Ewha will carry on its strong commitment to educating and training women to serve others with compassion and to bring greater peace to the world.

The Chosun Daily and the UK ratings agency QS jointly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the Asia University Ranking this year, and Ewha came out fourth amongst its peers in Korea. I firmly believe that there is no gain without hard work, and no future without preparation. Our achievement as recognized in the university ranking was possible because we had wisely and consistently invested in making Ewha more international and also because we had been preparing for the future by building our academic network and research infrastructure.

As we rise to prominence amongst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more and more leaders from across the globe are coming to visit us. In last February we welcomed Hillary Clinton, the U.S. Secretary of State, to our campus where she met with over 3,000 students. I was proud to witness the dialogue between Mrs. Clinton and our students, all conducted in English. The scene struck me as a proof of how truly global Ewha has become. The special occasion was covered in the White House blog as well as by various international media outlets, including the NYT, AFP and AP.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graciously accepted the award of "Distinguished Honorary Ewha Fellow" and expressed her appreciation of the distinction.

Building on our founding philosophy and the proud trajectory of over 100 years, Ewha is working on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of a world-renowned women's university taking on bold forward-looking initiatives. Ewha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mission and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our society and of the global community, and go beyond that to make our Initiative Ewha contribute to the wider world. I urge Ewha alumnae to come together and contribute your passion, dedication, wisdom and strength so that your alma mater can light up the way forward to a promising tomorrow.

I am most grateful to be a proud member of the Ewha community, one which I hope will grow with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ever supportive alumnae in North America. May God's grace be with you in all your endeavors.

Ewha 2009









## 북미주 이화동창 발간에 즈음하여

김 순 영(62 약학)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 존경하는 북미주 이화동창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동창들께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과 평안이 가득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특히 2009년에는 One Ewha One Vision의 가치 아래 이화 있음의 의미이기도 한 하나의 이화를 지향 할 뿐만 아니라 명실 상부한 하나 된 이화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될 진실로 뜻 깊은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One Ewha One Vision을 주제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북미주 이화동창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장하십니다. 또한 국제재단 이사회의 개최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17만 동창은 서울의 모교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화로서의 일치감을 물론 모교사랑을 크게 발휘하는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23년의 역사와 찬란한 전통의 우리의 모교 이화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화정신을 실천하는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 하였음을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교 이화는 항상 깊은 통합력을 갖고 시대변화에 대처하여 훌륭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굽이굽이 이화를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모교 이화는 이니셔티브 이화의 가치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배웅 총장님의 리더십으로 또 한 번 커다란 획을 그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북미주이화 동창여러분

발전하는 세계적인 모교와 우리 17만 동창은 한 수레의 두 바퀴, 동전의 양면으로 일체성을 이루어 오면서 우리 동창들은 지극정성으로 모교발전의 지원보호와 율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이화의 가치이고 정신인 믿음, 사랑, 공의, 나눔, 헌신의 전통을 우리 17만 동창은 계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교 이화가 세계화를 위하여 응비함과 같이 우리 이화총동창회 또한 세계화를 통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화동창들에 대해 네트워킹을 이루어 가는 일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문직 동창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의견교환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 또한 세계화된 동창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단순한 동창들 간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모교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대학평가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One Ewha One Vision의 가치를 든 2009년도의 북미주 이화 동창 총회를 준비하시는 중요하고도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해외의 모든 동창들의 끝없는 모교 사랑은 이화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식이 발간을 축하드리며 북미주 이화동창 총회 개최를 준비하시는 이미옥 회장, 이정형 이사장님, 김광자 회장, 김은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는 북미주 이화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동창 여러분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One Ewha, One Vision!*







# 이화여대 국제재단

Bishop Sharon Z. Rader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국제재단은 미국인들이 이화를 돕기 위하여 1947년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 와 김활람 선생님을 중심으로 1967년 설립된 <재미 이화10년발전사업위원회> 가 합병하여 1970년 발족되었다. 지난 40여년간 국제재단은 100주년 기념도서관, 목동병원, 대강당 보수, ECC 건축, Initiative Ewha-Paju 등 이화의 사업에 협력하였고, 각종 연구비, 도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08년도 회계년도 한해에만 총 \$467,183.80 을 이화에 지원하였으며, 이 중 장학금은 총 71명이 수혜하였다.



현재 국제재단에는 개인이 설립한 100여 개의 장학기금과 북미주 27개 동창지회에서 설립한 각 지회별 장학기금, 해외동창기금, 의과대학기금, 약학대학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있다. 국제재단은 501(c)(3) 인가를 받아 Internal Revenue Service 의 법규를 준수하며 엄격히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를 받는다.

국제재단에는 한국의 이화대학을 지원하는 기금 이외에도 미국에서 수학하는 동창과 이화 국제학기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한인 2세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 두 기금 모두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Personal Essay) 등을 제출해야 한다.

### • 아펜젤러 추모 장학기금(Appenzeller Memorial Scholarship)

아펜젤러를 추모하여 국제재단 이사들이 세운 기금

대 상: 현재 미국의 공인된 학교에 대학원 이상 과정에 등록하여 기독교 교육 등 공부하고 있는 이화여대 졸업생

지급액: 학생 1 명당 \$2,500 - \$5,000

매년 1월 15일에 신청 마감, 2월 25일까지 선정 및 지급 여부 통보

### • 글로리아 한 추모 장학기금(Gloria Han Memorial Scholarship)

글로리아 한 (한국명: 김논영)을 추모하여 가족이 세운 기금

대 상: 이화대학교의 국제교육원 하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한인 2세 (남녀불문)

지급액: 약 \$2,500 (학기프로그램 등록비 수준)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지급이 가능한 해 4월 5일에 신청 마감, 5월 15일까지 선정 및 지급 여부 통보.

### • 문의 및 연락처: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1359, New York, NY 10115

Tel. 212.864.5759 Fax. 212.864.2552

Email: ewhafdn@aol.com Website: www.ewhafoundation.org

Ewha 2009





# 세계를 향하여 달리는 만남의 장 "Seattle-Ewha 2008"

## 북미주지회 연합회 제7차 총회 및 이화여대 국제재단 제39회 이사회

2008년 지회 연합회 회장 이정형(63 약학)

이화여자대학교 총 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제7차 총회와 연례만찬을 워싱턴주의 시애틀지회 주관으로 2008년 11월6일(목)부터 9일(일)에 걸쳐서 "Global Ewha, Advancing the world" 기치를 가지고 Hilton Bellevu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북미주내의13개의 지회와 전역에서 모인 250여명의 동창들과 가족들이 참석 하였으며, 이배용 총장, 정경순 총동창회 고문, 총동창회의 김유경 부회장, 이명선 대외협력처장, 김효근 교류처장, 해외교류처의 서영주, 한인영비서, 김숙자 명예교수, 이선규 총동창회 재정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Bishop Ann B. Sherer 국제재단 부이사장이 참석하였다.

❖ 도착한 첫날 목요일 주회 측에서 준비한 환영선물인 우산과 간단한 요기를 마친 후 전 현직 지회장들이 모여 각 지회의 현황보고 및 향후 4년간의 총회 개최지 확정, 미정된 2013년도의 개최지를 남가주지회로 선정, 권장하였다. 현재 풀로 나누워진 북미주의 동창회 합병 및 회칙 개정 등을 위하여 총회에 상정을 할 것을 토의 하였다.

❖ 7일 금요일 7시, 김숙자 명예교수에 복기인 경쾌한 몸풀기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화인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버스에 올라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시애틀 시대를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수학여행을 상기하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곳저곳 구경을 하면서 그 동안 쌓였던 지난날들의 회포를 풀기에 바빴다. 이어서 저녁5시부터 6시까지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23명의 이사와 4명의참관인이 참석하여 전담 지회장회의에서 올린 4가지 안건을 총회에 토의상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끝 이어서 이배용 총장님과의 만찬을 시작하였다. 시애틀의 아름다운 곳곳을 배경으로 해서 짜인 시애틀지회의 동창회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동영상을 띄우면서 이정형 지회 연합회 회장의 환영인사, Bishop Ann Sherer 국제재단 부이사장의 기도, 총동창회 부회장 김유경이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북미주 전역의 동창들에게 보내는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이배용 총장은 간단한 모교소식을 전한 후 Ewha 2008 행사의 주회 기치와 더불어 "Initiative Ewha"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한국여성들의 리더십 창출, 파주교육복합단지에 대한 취지 및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하였다.

식사 후 제2부에는 주회 측에서 정성껏 마련한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사위밴드, 사위들의 북사중창단의 공연으로 진정인 이화가족의 참 사랑을 보였고 금요일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Ewha Idol" 선발 노래자랑이 열렸다. 박영숙( 경영, 뉴욕지회) 동문

이 Idol로 왕관과 붉은 망토를 걸치고 대관식을 치러 모두에게 박장대소를 안겨 주었고 총장님이 "향수"를 불러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감탄의 박수가 끝일 줄을 몰랐다. 즐겁고 풍부한 프로그램에 한껏 취한 동창들은 진정 잠 못 이룬 시애틀을 다시 한 번 실감한 듯 했다.

❖ 8일 토요일 8시30분에 열린 총회에서는 출석보고, 개최선언에 이어 김유경 총동창회 부회장이 김순영 총동창회장의 요지의 말씀을 대독, 이화2007년 총회보고, 2007년 연합회 회장 최석남에게 감사패 수여, 5년간의 개최지 확정, 회칙개정, 지회 연합회 Web Site 활성화, 나누워진 동창회 합병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을 가졌다. 서둘러서 이종일박사의 사랑과 정에 대한 재치 있는 강연회, 마이크로 소프트회사, 보잉비행기회사 부어 일정을 마친 후 연례만찬으로 들어갔다.

만찬에서는 Bill&Melinda Gates Foundation CAO, Martha Choe (작고한 정양자 (37,가정)의 딸)의 리더십 강연, 각 지회에서 마련한 Talent 자랑이 열렸다. 이 토크쇼에서는 일 년 동안 연습해온 각 지회의 각종 재치공연을 볼 때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일 년치 웃음을 하루 저녁에 다 쏟아 붓는 듯 허리를 붙잡고 웃어야 만 했다. 나머지 흥겨운 만찬순서를 끝낸 후 기념촬영을 한 후 아쉬운 일정을 마감했다.

❖ 9일 일요일 아침 주일예배와 이배용 총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3일 동안 모든 일정을 마친 동창들은 더 많은 애교심과 상호교류를 다짐하면서 새로운 이화의 주역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 자랑스러운 동창 추천 바랍니다.

이화 동문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 그리고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회보에 소개하고 그런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동창회에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Ewha 2009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및 국제재단 이사회, 사진앨범

Seattle 북미주지회 연합회 제7차 총회 및 이화여대 국제재단 제39회 이사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북미주지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및 국제재단 이사회, 사진앨범



Ewha 2009



각 지회와 동향소식

남가주



지회장 : 김주경(77 관현)

1963년에 남가주동창회가 처음 결성된 후 56년이 되고 회원이 1200여 명에 달한다.

남가주지회가 매년 벌이는 정기적인 주요활동은 5월 합창제, 9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10월 한가위 행사,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참여, 12월 연말 총회 및 장학금 수여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이다. 이 외에도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와 야유회, 매달 열리는 임원회, 일 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 이사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에서는 매년 좋은 성과를 올려서, 올해는 일인 10달러 도내이선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만 달러 달성세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패션 쇼에서 만 달러의 기금이 모여졌다. 현재, 남가주동창회는 6만여 달러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만 달러 증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남가주지회 산하에는 선교부(회장: 이귀임 성악 63), 건미회(회장: 하명숙 체육 66), 합창부(단장: 박광순 기문 64), 골프부(회장: 민영숙 간호 73), 녹미회(회장: 오명에 잠미 74) 등이 매달 월례회를 가지며, 선교부는 매주 한 번씩 모여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동창회보도 매년 두 차례, 4월과 11월에 발간되어 남가주 전역에 있는 회원들에게 우송되고 있으며, 1995년에 처음 발간되어 매 5년마다 개정하여 한 번씩 펴내고 있는 동창주소록을 내년 2010년에 다시 발간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사들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초혜 영문시 입선

이초혜(재초혜 63 국문) 동문 Poetry Contest Seal Beach 소재 'The Leisure World Writers' Club이 주최한 Poetry Contest에서 이 동문이 영문 시, "어머니 꽃"과 "겨울나무"가 입선되어 4월 18일 저녁에 수상식과 시 낭송 행사를 클럽 하우스에서 가졌다. 이 동문은 시, 시조, 수필, 세 분야에서 모두 등단하였고, 제2회 해외동포창작문학상을 수상했

다. 현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이며, 미국국방외국어대학 한국어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저서에는 시집, "창 밖엔 치자꽃이"가 있다.

성기순(성혜 69) 동문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장에 선임

성 동문이 2009년도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성 동문은 2002년 홍익대학교 사회교육원 민화과를 수료하고 송규태 화백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민화협회 회원들과 더불어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수본민화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교육원에서 매주 두 번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미국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민화 워크숍에서 실기와 강의를 맡고 있다.

이정아(임정아/가정관리 77) 동문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에 피선

재미수필문학가협회는 2009년 1월 15일, 한미교육원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동문은 미주와 한국의 우수 문학지에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수필가이다. 이 동문은 1997년 한국수필로 등단하였으며 미주한국일보에 여성칼럼을 7년간 연재하였고, 중앙일보의 '이 아침'을 2년간 집필하였다.

수필집으로는 '낮선 숲을 지나며'와 '선물'이 있으며 '해외한국수필 문학상'과 '미주 펜 문학상' 그리고 "경기여고 공로상"을 수상했다.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오랫동안 도서관을 후원한 공로로 City of Los Angeles에서 주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2008년 한국수필 12월호에는 이 동문의 기사와 작품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이 동문은 현재,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생활수기 부문 심사를 맡고 있다.

덴버



지회장: 이미옥(68 국문)

5년 전에 창립된 덴버지회는 현재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는 점심, 석 달에 한 번씩은 부부동반의 저녁모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저녁모임에는 주로 speaker를 모시고, 생활에 유의하고, 지적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픽들에 관해 강의를 들은바 있







### 각 지회와 동창소식

으나, 올해는 총동창회를 host하는 입장에서, 주로 총회준비에 모든 모임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

1월 10일 토요일에 첫 떡국모임을 서울BBQ 레스토랑에서 35명의 이화가족이 모여, 어떻게 fundraising하고,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것인가로 brainstorm 세션을 가졌다. 1000불 클럽을 만들어 우선 종자들을 만들고, 300불, 500불도 괜찮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6월 저녁모임은 금우연 동문 집에서 potluck style로 열렸고, 또한 부부합창연습을 주마서 이화 사위의 지휘, 방효주 동문반주로 처음 시도했다. 계속되는 펜드레이징과 전국에서 오실 이화가족들을 위해 덴버지회는 열과 성을 다해 준비 중이다.

### 라스베가스



지회장: 이회현(63 의과)  
회원 수: 약 40여명

동창회는 매월 셋째 토요일 정오에 동문들 집에서 또는 식당에서 모이며, 봄에는 부부동반으로 Picnic 이나 Hiking 으로 모이고 겨울에는 부부동반으로 Christmas Party 로 집에서 모인다. 특히 이화의 사위님들께서 아주 협조적하시고 함께 모여서 4종창으로 부르면 어느 공연단보다도 더 훌륭하여 아주 자랑스러운 사위님들 이다.

6월 5일 이곳 약학대학을 졸업한 김혜령 동문 (영문과 졸 79)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약학대학을 마친 슈퍼 이화동문으로 대단히 자랑스럽다

또한 매주 한번씩 Hawaiian dance Lesson, 유연옥 동문 (1964 성악과)의 지도로 합창 연습, 매달 동창회 때는 이회현 동문(1970년 무용과)의 지도로 요가 연습 등 많은 재주꾼들이 모인 지회이다.

*One Ewha,  
One Vision!*

### 미시간

지회장: 오미령(77 식품영양)

5월 2일에 NOVI에 있는 셰라톤 호텔에서 봄 모임을 가졌으며 38명의 동문과 사위들이 참가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영숙(77년 약학과 졸)동문에게 감사의 말과 작은 선물을 전하였으며, 특히 올해로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김상연(59년 간호학과 졸) 동문, 채예병(59년 사학과졸)동문과 함께 서우심(57년, 약학과졸), 홍영희(57년 영문학과졸) 대선배님들에게 끝없는 이화와 후배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동화 박사님을 모시고 암과 여성건강에 대한 강의들 들은 뒤 더욱 바르게 생각하고 먹고 생활하는 이화인이 되자고 다짐하였다.

### 북가주



지회장: 양승희(73 사학)  
동창회원 수: 500여명, 1964년에 동창회 발족

매달 첫째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첫째 동창 친목도모와 둘째 모교발전을 돕고 셋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있다. 동창회는 임원, 지역 상임위원, 후원이사, 골프클럽, 무용반, 요리반 등이 있어 아름답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고 있으며 지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창회의 공지사항 및 상호교류하고 있다.

동창들 중에는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은 음악가, 나효신 동창(작곡 82)을 비롯해서 이아람 동창(관현 94)은 뷰티풀 마인드에서 비올라 연주자, 김영희 동창 (동양 81)은 매년 미술전시회를 또 무용가, 정혜란 동창(무용 85)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희식 동창(사사 61)이 산호세 한미봉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 각 지회와 동창소식

며, 이현아 동창 (행정 85)은 산호세 한미 봉사회 관장으로, 이정렬 동창(간호 71)은 이스트베이 한미 봉사회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예방기관인 험터를 운영하고 있다.

요리연구가 장선웅 동창(국문 63)과 전 버클리 교수 김경년 동창(불문 63)도 우리 동창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며, 특히 대 선배이신 국제재단 이사 박옥희 동창(약학 51)은 후배 사람과 이화사랑에 열심이신 분으로 손꼽을 수 있다.

### 북 텍사스



지회장: 김연향(62 교육)

지난 2009년 2월 21일에 수라 레스토랑에서 정기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동문 회원 27명이 참석했는데, 2년 임기를 끝낸 이경화 전 회장(무용과, 76년)의 사회로 참석한 동문들의 소개로 시작하여, 2008년도의 활동과 회계 보고가 있다.

이어서 2009년, 2010년의 2년 동안 지회 동창회를 이끌고 나갈 새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새 회장에는 김연향 동문(교육학과, 62년), 새 부회장에는 강영애 동문(관현악과, 71년)이 선출되었고 새 임원진은 회칙의 규정에 따라 결성하도록 하였다.

김연향 회장은 이경화 전 회장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회원 신상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회원 93명의 주소록을 작성하여 우선 이메일을 가진 회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오는 6월 초에는 아담하고 예쁘게 디자인한 표지를 가진 새 회원 명부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회원 명부의 발간이 지회가 새롭게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시카고

지회장: 조경님(61 미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시카고의 이화인들은 통합된 이화, 하나의 이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무궁 전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One Ewha, One Vision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철심을 축하합니다.

동창회 회원들이 차린 권오화 회장님의 철순잔치는 우리 모두의 살아온 삶을 평가해보고 동시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마무리 지을 가를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향연이었다.

권오화 회장님은 Chicago에서 Fashion Show를 통해서 전무후무 하게 거액의 모금을 하여 모교에 후원금을 보냈고 잔금은 Chicago 동창회에 남겨서 동창회의 재정을 단단한 기반에 올리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2001년 Chicago에서 이화대학 북미주 총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헌신적인 노력은 모든 동창들을 감복시켰고 그 모임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럴듯 심혈을 다하여 헌신하다가 쇠파이프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잘못 하면 불구자가 될 뻔하다 사고가 생겨,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기동이 어려웠는데, 그의 집념과 꾸준한 노력으로 그 무릎을 사고 전보다 더 튼튼히 가꾸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운동도 잘하고 또한 춤도 잘 추어 아무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힘찬 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한 예를 든다면 2007년 북미주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전무지휘하여 가장 성공적인 동창회 모임으로 막을 내려 북미주에 있는 많은 동창들에게 좋은 본이 된 일이다. 풍성하게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거액의 잔액이 남아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8600불의 발전기금을 총동창회에 기증하여 동창회의 재정을 튼튼히 다지는데 또 큰 기여를 하였다.

가정, 교회, 동창회, 여성회, 문화회관 그 외 많은 사회봉사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올바른 판단과 헌신적인 봉사로서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큰 지도자이다. 정의로운 마음, 몸에 배인 봉사정신, 강한 추진력, 일에 대한 열정, 긍정적인 삶의 태도 등은 참으로 감탄스러우며 또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 대단한 음식솜씨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항상 좋은 음식을 낮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 하는 일이 시원시원하고 격조 높은 안목이 있어 Stylish한 삶의 중요로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각 지회와 동창소식

어느 시인이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고 마음가짐이며 스무 살의 나이에도 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백 살의 나이에도 청춘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하였는데 권오화 회장님은 지금 같은 청춘으로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하며 늘 이화와 여성들의 보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한다.

이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화를 위하여 분신하시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시카고의 소식을 전한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지난 1년 동안의 중요 행사로는 5월의 총회 이화의밤 행사, 2번의 대 선배모시기, 3번의 지역모임 등이 있었다.

1. 지난 5월 3일 시카고 지역 이화의 밤 행사에는 1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배님들의 만남의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었다.
2. 최신휘 영문과 (43) 장희정 가정과 (36) 최순원 음대 (50) 김유순 약학과 (50) 신혜순 법과 (55) 이경환 음대 (37) 등 대 선배님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며 즐거운 사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작은 선물도 준비해 드렸고 선배님께서는 오랫동안의 기쁨을 만끽하시며 이 날의 모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다. 가는시간을 아쉬워 하시며 행복하신 모습에 옛 이화의 이야기로 끝이 없는 즐거운 시간이라 참으로 보람된 일 이었다.
3. 3번의 지역 모임으로는 북부 지역과 위스칸신 지역, 서부 지역과 서북부 지역, 남부 지역과 시카고 지역 모임이다.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맛있고 멋있는 점심식사 식탁이 마련되었고 그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동문들을 위해 케익을 준비하여 축하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며 지혜로움을 한층 더 할 수 있는 뜻있는 세미나도 곁들여 참으로 멋있고 유익한 이화인의 모임을 가졌다.
4. 앞으로 9월13일에는 시카고 이화인을 위한 피크닉을 가질 예정이다.

### 씨애틀

지회장: 백신자(64 영문)

정기적인 모임은 매달 셋째 목요일로 지회의 지향은 "친목도모"와 "배우는 이화사랑"으로 선배의 후배사랑, 선배들을 알뜰히 챙겨주는 후배의 정성으로 아름답고 재미있고 서로 사랑하는 동창회로서 모교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화사랑을 나누자에 그 뜻이 있다.

지회는 이사, 감사, 회장 및 임원을 두고 골프반, 음악반, 무용반, 서도반, 등산반, 기타 등등의 모임을 갖고 매주 또는 격주로 많은 선배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활동하며 2008년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를 주최한 이후에는 애교심은 물론 "우리도 잘 해 냈다" 라는 긍지를 갖고 동문들과의 화목이 더욱 깊어졌다.



2009년의 과제는 지회의 세금공제신청서를 IRS에 제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대학진학을 앞둔 동창자녀에게 주는 격려금, 동문들의 경조사, "이화2009" 행사참여, 동문가족 피크닉, 송년회 등으로 회장과 임원들, 동문들이 다 함께 합심하고 열성을 다하여 지회를 발전, 승화시키고 있다.

### 알래스카



지회장: 김연순(59 화학)

2월 5일 10명의 회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여 VIP 레스토랑에서 일 년 계획을 위한 정규모임을 가졌다. 장학기금을 모으기 위해 연회비를 \$120.00에서 \$200.00로 상향조정하고 4월 25일에는 12학년 (고교졸업반) 학생들에게 \$1000.00 장학금을 수여했다.

### 에드몬톤 <캐나다>

지회장: 김정자(65 기독교)

#### 동창의 설립동기:

1960년 후반,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Alberta 주수도 Edmonton 시에 직장을 찾아 이주해왔거나 주립 알버타 대학에 유학 혹은 교수직(조교, 교환교수)으로 임용되어 온 부군과 함께 이곳에 정착하게 된 극소수 2, 3명의 동문이 만나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서로 도와주고 생활정보 교환 및 친목 나아가 한인





## 각 지회와 동창소식



사회에 기여한다는 정신으로 비공식 회동을 시작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임이 통기가 되어 1979년 5월, 58학번 수학과 최영린 동문 집에서 “에드몬튼 이화여자 대학교 동문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 동창회 연혁:

1. 1979년 5월 동문회 발족
2. 매년 정기모임을 갖고 가벼운 사업계획과 회장단 선출
3. 1990년경 이후 수년간 활동이 부진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다시 회생하여
4. 2009년 현재 30여명에 달하는 동문들이 참여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발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역대 동창회 회장:

1979년 초대회장에 최영린(58학번 수학), 박수옥(이사), 조슬리(59학번 영어영문), 이혜경(63학번 사회생활), 현 회장에 김정자(61학번 기독교) 동문이 수고 하고 있다.

### 동창회 활동:

1. 정기 연례모임/12월 정기총회
2. 성탄절 파티
3. 하계/추계 야유회
4. 한국어학교 경제적 지원
5. 한인단체 행사에 참여 및 지원
6. 기타

## 워싱턴 DC

회장: 김홍자(58 섬예)

### 2009년 2월 이화여대 국악연주회

워싱턴 주재 Asian American Music Society 회장 양미라 동문 (73 섬악)은 워싱턴지회 김홍자 회장 (58 섬예)과 이정렬 이사장 (61 사회생활)과의 만남에서 이화 국악단의 워싱턴 공연에 대한 기본구상을 전달했다.

양동문은 5월 1일과 4일 케네디 필레니엄 스테이지와 조지메이슨 대학 콘서트홀에서 각 1회씩 진행될 본 행사와 관련하여 워



싱턴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홍자 회장은 현 지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 2009년 3월 1일: 준비위 1차 미팅

준비위 1차 미팅이 와싱턴한인교회 (KUMCGW)에서 워싱턴지회 임원 및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워싱턴지회가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으로써 행사 전반에 주도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악단의 숙박, 교통, 홈스테이, 식사, 환영파티, 관광, 후원금 마련 방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입차적 논의를 했다.

### 2009년 3월

4월 초 워싱턴지회 회원들에게 발송할 안내장 준비에 착수했다. 홍성자 동문 (64 영문/지회 동창회 역사)은 전단지를 디자인했고, 이영주 동문 (72 간호/지회 재무)은 국악단 일정을 계획했고, 전정숙 동문 (97 섬예/지회 총무)은 초청장 제작과 기금마련 편지를 작성했고, 김영숙 동문 (89 전산/지회 세무)과 이미영 동문 (85 사회생활/지회 서기)은 350 명의 지회 회원에게 발송할 유인물을 복사했다.

### 2009년 4월 4일: 준비위 2차 미팅

김정화 동문 (82 조소/지회 부회장) 자택에서 진행된 준비위 2차 미팅에서는 국악단이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의 세부일정과 업무내역이 논의되었다. 북미주 연합회와 불티모어 지회를 시작으로 많은 단체와 개인 후원소식이 잇따랐다.

### 2009년 4월 17일: 기자간담회

행사 2 주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간담회에는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장 남진수, 프로그램 디렉터 이상도, 한미장학재단 회장 이정환, 오픈아트스튜디오를 원장 이택형, 기쁜소리방송 사장 신경섭, 코리안 댄스 컴퍼니 단장 김은수 (동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쁜소리방송 기자들, 김광자 동문 (66 불문/북미주 총동창회 회장) 및 지회 관련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홍자 회장은 공연 준비과정, 프로그램 및 국악단 소개를 보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 2009년 4월 20일 ~ 29일: 신문 광고 홍보

워싱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

Ewha 2009







### 각 지회와 동창소식

지에 홍보 광고가 나간 후 일반인들의 많은 문의가 왔다.

#### 2009년 4월 30일: 국악단 도착

홍종진 (국악과 교수) 단장을 필두로 이화 국악단이 워싱턴 필러스 공항에 도착했다. 지회 임원 및 역대회장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국악단을 환영했다. 국악단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홍종진 단장과 국악단 대표들, 김홍자 회장은 기쁜소리방송 (AM 1310) 인터뷰에 참석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참석자 모두는 다른 국악단원들과 함께 이정렬 이사장이 주최하는 환영 파티 장소로 이동했다. 수많은 지회 회원들이 단원을 환영하기 위해 파티가 열리는 이이사장의 자택에 모였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워싱턴의 첫날밤을 함께 맞이했다.

#### 2009년 5월 1일: 케네디 공연

드디어 이화 국악단의 워싱턴 첫 공연이 케네디 센터 밀레니엄 스테이지에서 개최되었다. 본 공연에는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뜨거운 반응을 실감할 수 있었다.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내내 서서 관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프로그램이 끝날 때 마다 탄성을 자아냈다. 공연 후 주미한국대사관 남진수 문화홍보원장 주최의 만찬이 한국식당에서 진행되었다.

#### 2009년 5월 2일: DC 관광

국악단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관광과 아울렛 쇼핑을 즐겼다.

#### 2009년 5월 3일: KUMC 공연

와싱턴한인교회 (KUMCGW)에서 교인들을 위한 예배공연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공연 후 이영주 재주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였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지회 회원들과 국악단원들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09년 5월 4일: GMU 공연

마지막 공식 공연이 조지메이슨 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고 월요일 평일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다. 이번 공연의 피날레는 코리안 댄스 컴퍼니의 무용단원들이 합동 공연으로 복층을 선보였다. 공연 후 국악단원들은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회 회원들의 집에서 보냈다.

#### 2009년 5월 5일: 국악단 출국

성공적인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국악단원들이 출국하는 날, 홈스테이를 주관한 지회 회원들은 공항에서 국악단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 공연을 마치며

이번 국악 공연은 워싱턴 내에서 우리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워싱턴 동창들을 하나로 묶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동창 선�후배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협업하는 모습에서 이화인이라는 동질성과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공연을 계

기로 더 많은 이화의 젊은 예술인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 임원진:

김홍자 (58 섬예), 김정화 (82 조각), 이정실 (86 불문), 전정숙 (97 섬예), 이영주 (72 간호), 이미영 (85 사회생활), 손현숙 (83 화학), 이지은 (83 영문), 언복례 (70 약학), 정육지 (65, 풍암화), 강영미 (84 서양화), 김경애 (68 서양화), 이흥주 (80 피아노), 강영숙 (89 전산), 이정렬 (61 사회생활), 홍성자 (64 영문)

워싱턴지회 김홍자 회장이 기획하고 참여한 전시가 지난 5월 19일 (화)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KORUS House)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6월 24일 (수)까지 진행 될 본 전시는 Five Different Expressions: Clay, Metal & Wood Sculptures 라는 제하에 워싱턴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는 저명한 아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로는 금속에 Namu Cho, Komelia Hongja Okim (김홍자), 도자에 Turker Ozdogan, Machiko Shishido, 나뭇조각에 Foon Sham이 있으며, 오프닝 행사에는 5개국 대사 및 수많은 미술관계자와 일반객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토론토 <캐나다>



지회장: 조미리(81 도예)

북미주 동문남께서 힘든 과정을 거쳐 한 마음으로 이화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초를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기쁜소식을 접하고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화합의 대이화로 거듭나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1. 이정자(조소 65) 불문 토론토 한인 사회 예술 발전의 주축이 되어온 동문의 개인전 (03/07-03/21)을 가졌고 한국일보사의 원로 예술인 초대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 윤경남 동문 (영문 줄)의 포토여행 수필가 에세이 성지의 향

이화  
동창회  
가  
미  
리





### 각 지회와 동창소식

기(The Fragrance of The Holy Land)를 최근 출간(영문), 이 책은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등 지중해 기독교 성지를 직접 순례하며 촬영한 다수의 컬러 사진과 글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동문은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와 캐나다 지역위원회 회원이자 한국 번역가 협회 회원, 유럽 기행 등 수 차례의 사진전과 여러 편의 번역서도 출간했다. 현재 한국일보에 스페인 여행기를 연재하고 있다.

3. 정성덕 동문(독문 68)과 부군 이광민 씨의 부부 전시회(03/18-03/25)를 토론토 총영사관(555 Avenue Rd.)에서 열었다. 지난 2006년 LA 한국문화원 캐나다 4인 작가 초대전 등에 함께 참가했다. 이씨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부부시간 그림으로 대화를 나누며 누린 창작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다면 큰 보람일 것" 이라고 전했다.

### 필라델피아



지회장: 박영진(85 과학교육)

이화 북미주 동창회의 하나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필라델피아 지회는 1968년에 창립, New Jersey주의 Trenton, Princeton, Pennington, Cherry Hill, Atlantic City, 및 남부 New Jersey, Delaware 주의 Wilmington, Newark, Pennsylvania 주의 Lancaster, Reading, Allentown, Easton, New Hope 및 필라델피아 인근 County 등에 살고 있는 동문들이 참여 하고, 동문회는 물론 교회, 또는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활동을 계속 하며 한층더 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이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발전하는 이화, 젊은 이화'라는 기치아래, 2009년도에는 좀 더 많은 후배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한차례 모임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비운 뒤에 맑이 곧듯 이후에 모임에서

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했다. 4월에 있었던 곳곳이 강좌에서는 탁월한 실력들을 보여 만족했고, 5월의 '작은 음악회'는 홍정임 (1960졸업, 영문과)동문의 집에서, 또한 공인 보석 감정사이신 동문이 들려주는 신기한 보석 이야기, 한의사 동문님의 건강강좌, 서재필박사 기념관 방문 등 다재롭고 유익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화 북미주 동창회의 하나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 휴스턴

지회장: 김명옥(75 경영)

회원 수: 90여명

매달 모이면서 달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동문들 집에서 모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구정엔 노인들을 위하여 선물, 떡국간지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갖고 몇몇 동문들께서는 노인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3월에는 파주 캠퍼스를 위한 런천모금 파티를 유미희(66년 영문과 졸업)동문의 부군이신 의학계의 타이거 우드로 볼리는 흉안기 의사님(M. D. Anderson)을 모시고 암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며 소문난 이영일 동문(72년 의직 졸업)의 요리솜씨를 즐기며 \$10,000을 모금하였다. 해마다 대학 진학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박물관을 방문하여 문화교류 및 이화의 이름으로 모금을 전하기도 하여 비주류 사회에서 이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동창인

## 이화가 배출한 보배

## 우리의 생동력인

## 이화의 보람

Ewha 2009







## 우리 다함께 하나가 되어...

김영강(이영강/66 국문)  
남가주 지회



삼 년 전쯤에 어느 단체에서 라인댄스 교습이 붙어왔다.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주로 5, 60대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젊잖고 수준 높은 단체라고 했다. 연중 행사 프로그램에 한 시간 정도를 내게 할당할 것이었다. 쫓겨가는 단체일까 하고 궁금했지만 꼬치꼬치 묻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아 짐작과 있었다. 행사 며칠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바로 이화대학 북미주총동창회가 주관하는 행사였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 "어마, 그래요? 저도 이화대학 나왔어요." 하고는 그날, 신나게 달려가 신나는 저녁 한때를 보냈다. 이곳 열에이 월서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미주 전역에서 모인 백여명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 했었다. 참 보기가 좋았다. 졸업 후,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 풀이 손을 맞잡고 팔짝팔짝 뛰며 어둠에서 럽 기뻐하기도 했다. "어머나 너, 하나도 안 변했어, 학교 때랑 똑같아." 어떻게 20대랑 60대가 똑 같을 수 있을 소야 마는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쳤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근 40년에 가까워오지만, 나는 그동안에 동창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이 지냈다. 이곳 열에이에 이화대학 동창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라인댄스 감사로 한번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이곳 이화여대동창회가 하나가 아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창회가 두 개라니.....

이건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창피해서 얼굴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 후, 동창회가 하나건 둘이건 간에 나하고는 다시 연관이 없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다시 동창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이곳 남가주동창회 동창회보 편집을 맡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이쪽 동창회는 저쪽 동창회가 아니었다. 사실, 난 그날 저쪽 동창회의 행사에 참여했을 때, 나도 앞으로는 동창회에 나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날의 행사가 내게는 참 아름답게 비춰졌고 동창회라는 것이 내 인생에 율합유를 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척정신이 없는 성격이라선지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 나는 지금 동창회 일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이라는 것이 내 적성에 맞는 글 쓰는 것이기에 행복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뒷받이 있음에 감사한다.

어쨌든 지금 쪼개진 두 동창회가 하나로 합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합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처리를 할 때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게 마련이다. 두 팀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높이면 모처럼 쌓아올린 탑이 우르르 무너질 위험이 따른다. 어찌되었건 간에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의 동창회는 두 쪽이 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회장단의 진행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지금쯤은 확실히 하나가 되어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덴버에서 열리는 제 8차 북미주지회연합회에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리라 믿고 싶다.

## 북미주 지회장 명단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	졸업년도
AK	Alaska	김연순	화학	59
AZ	Arizona	조한순	전산	85
CA	S. California	김주경	관현악	77
CA	San Diego	송요령	수학	74
CA	San Francisco	양승희	사학	73
CO	Denver	이미옥	국문	68
DC	DC	김홍자	섬유예술	62
FL	Orlando	전방덕	약학	63
GA	Atlanta	장석란	서양화	68
HI	Hawaii	김영자	의학	70
IL	Chicago	조경님	조소	68
CN	Toronto	조미리	도예	81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MA	Boston	이주연	간호	68
MD	Baltimore	지명희	약학	71
MI	Detroit	이영숙	약학	70
MI	E. Lansing	조미영	동양화	85
MN	Minnesota	강수정	의류직물	76
MO	St. Louis	김혜영	간호	79
NV	Las Vegas	이희련	의학	63
NY	New York	이정화	영문	70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OH	Cleveland	김재희	불문	79
CN	Vancouver	정인순	보건교육	70
OR	Portland	김혜숙	영문	71
PA	Allentown	강혜란	화학	72
PA	N. Eastern	김영숙	국문	63
PA	Philadelphia	박영진	화학교육	89
TN	Nashville	김인경	영문	76
TX	N. Texas	김연향	교육	62
TX	Houston	김명옥	법정	75
WA	Seattle	백신자	영문	64
CN	Edmonton	이정자	기독교	65
CN	Montreal	이채화	무용	76
CN	Ottawa	장소영	사회사업	71
RI	R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NY	Buffalo	김기연	작곡	70



# Ewha '09



## 복미주 이화동창

Ewha 2009 총회/만찬 11월12일(목)-15일(일)

### One Ewha One Vision

#### 참가자 신청서

이름: 한글/Korean \_\_\_\_\_  
 영어/English \_\_\_\_\_  
 주소/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  
 출생년도: \_\_\_\_\_ 전공: \_\_\_\_\_ 졸업계 지역: \_\_\_\_\_  
 국제재단: \_\_\_\_\_  
 전화: Home: \_\_\_\_\_ Cell: \_\_\_\_\_  
 Work: \_\_\_\_\_ Fax: \_\_\_\_\_  
 E-mail: \_\_\_\_\_  
 통번역 수: \_\_\_\_\_ 통번역 비용: \_\_\_\_\_

참가비: 등록비 \$20 \$ \_\_\_\_\_ 20  
 참가자 수 \_\_\_\_\_ 명 x \$200 \$ \_\_\_\_\_  
 참가비 총액 \$ \_\_\_\_\_  
 금, 모, 별(포함/연락/연락 비용 포함)

참가비서류를 개인수표로써 본 참가 신청서와 함께 10월 15일 까지 여려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able to: Ewha Womens Univ. Alumnae Assn.  
 Mrs. Woo Chu  
 P.O. Box 850814  
 Westminster, CO 80055-0614

**호텔예약:** 10/22까지 각자예약 요망

**The Inverness Hotel and Conference Center**  
 200 Inverness Drive West, Englewood, CO 80112  
 (303) 799-5800 or 1 (800) 348-4891

Group Code: **2PC3RZ**  
 Room Rate \$119 (4명까지 가능)

## Schedule

- 12일(목)** 15:00 Registration  
 18:30 Get to Know  
 19:30 각 지회소개
- 13일(금)** 7:00 아침운동  
 8:30 Ewha 2009 총회  
 11:00 버스 탑승  
 11:30 점심(한식)  
 12:00 관광  
 (Air Force Academy & Garden of the Gods)  
 18:00 총장과의 만찬
- 14일(토)** 7:00 아침운동  
 9:00 Seminar 1, 2, 3, 4  
 11:00 관광(Vail)  
 18:00 Annual Banquet
- 15일(일)** 8:00 총장과의 아침 식사  
 9:30 주일예배  
 총장 간담회  
 임원교체

#### 공항 - 호텔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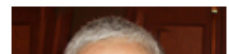
슈퍼셔틀 [www.supershuttle.com](http://www.supershuttle.com)  
 롯데 택시(일인당 \$21 미만) (303) 434-3588  
 매일 택시(일인당 \$21 미만) (720) 203-8044  
 Yellow Cab(차량당 \$80) (303) 342-2000



The Ewha Womens Univ. Alumnae Assn. of North America  
 6635 S. Dayton Street, Suite 220  
 Greenwood Village, CO 80111

\*\*\*\*\*ECRL0T\*\*R-008 T00001

RESIDENT  
 12043 E. Lake Circle  
 Greenwood Village, CO 80111-1097





2009 - Denver 총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이미옥 (국문 68)



북미주 이화동창

동창은 이회개 맥출민 보배, 우백외 생동력은 이회외 보람

*Ewha 2009*  
One Ewha, One Vision!

초 대 합 니 다

North America Unifying Conference

Nov. 12~15, 2009

The Inverness Hotel

Denver, Colorado





Last modified : 2011.07.19 <01:48>